

서구, 아이 위한 특별한 놀이 행사 '호응'

유덕어린이공원에서 '팝업 놀이터' 키즈 플리마켓 등 프로그램 다채 '유덕동 아동친화거리 조성' 일환

광주 서구가 아이들에게 특별한 놀이 기회를 마련해 큰 호응을 얻었다.

서구는 지난 12일 유덕어린이공원에서 아이를 위한 놀이 행사 '아미키즈들의 특별한 하루, 팝업놀이터'를 개최했다.

'아이들이 미소짓는 마을' 유덕동은 놀이와 체험을 통해 아이들이 권리와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추진했다.

이번 행사에는 서구 아동청소년과, 유덕동행정복지센터, 월드비전무진종합복지관, 세이브더칠드런, 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 광천문화의집, 상촌문화의집, 성균관·광천·유덕지역아동센터가 참여기관으로 함께 했다.

팝업놀이터에서는 '놀이는 권리다'라는 주제에 맞춰 스포츠 에어바운서, 페타이어 굴링체험, 스포츠스태킹, 인생네트 사진촬영, 키즈 플리마켓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졌다.

아동학대예방의날(11월19일)과 세계어린이날(11월20일)을 기념해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소개하고, 아동과 보행자의 교통안전에 대해 유덕동 어린이보호구역에 야광 포인트마크를 부착하는 등 아동



김이강 광주서구청장과 유덕동 행정복지센터 등 관계자들이 지난 12일 유덕어린이공원에서 열린 아이를 위한 놀이 행사 '아미키즈들의 특별한 하루, 팝업놀이터'에 참석해 도로 경계석에 스크존 포인트마크를 부착하고 있다. 광주 서구 제공

보호와 권리에 대한 의미도 더했다.

또 서구는 유덕동 내 '울기즈존(ALL KIDS ZONE)' 지역의 도로 경계석에 아이들의 그림을 시공하고 스크존 포인트마크를 부착해 안전하고 친근한 아동친

화거리를 조성하고 있다. 이 지역의 아동친화업소에는 유아용 식기와 의자, 드로잉세트 등이 지원돼 어린이와 부모가 편안하게 가게를 이용할 수 있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아이들이 미소짓

는 마을인 유덕동에서 특별한 놀이 기회를 제공하게 돼 기쁘다"며 "아동의 놀 권리를 확대하기 위한 아동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성아 기자 sanga.jeong@jnilbo.com

도시취약지역 개조사업 공모 선정 광산구, 2년간 국비 40억 확보

광주 광산구는 삼도동 운평마을(운평길 18)이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주관한 '2025년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광산구는 지난해 비아동 큰도랑질마을에 이어 연속으로 공모에 선정됐으며, 국비 21억원을 추가 확보해 2년간 국비 40억원을 확보하게 됐다.

광산구는 사업 공모를 위해 도시재생공동체센터와 함께 대상지 요건, 쇠퇴도, 시급성 분석 등 최종 후보지를 정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재해방지사설 △마을안길 정비 △자원순환시설 △경로당 및 정자 정비 △주택 정비 및 집수리 지원 △주민역량 강화 사업 등이 있다.

광산구 관계자는 "운평마을 주민이 보다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어 기쁘다"며 "지역 내 낙후된 사업대상지를 적극 발굴해 주민의 삶이 개선되고 함께 지속가능한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상철 기자

북구, 겨울철 재난 대비 추진 주민 안전 확보·피해 최소화 총력

광주 북구가 주민들의 안전한 겨울나기를 위해 자연 재난 대비 체계를 마련한다.

13일 북구에 따르면 15일부터 내년 3월15일까지 5개월간 '겨울철 자연 재난 대비 종합대책'이 본격 추진된다.

북구는 겨울철 재난 위험 상황을 즉시 인지할 수 있도록 방재기상정보시스템, 스마트 재난안전관리시스템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기상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즉각적인 현장대응을 위해 부구청장 직보 체계를 운영한다.

또 인접한 지자체 및 군부대와 상호 응원체계를 구축하고 북부소방, 북부경찰, 한국전력공사, 해양에너지 등 유관기관과는 협업 기능별 T/F를 운영한다.

폭설 시에는 총 111개 노선(간선도로 84개, 이면도로 27개)과 결빙 취약지 17곳을 덤트럭, 삽식기 살포기, 친환경 제설제 제설 장비를 활용해 중점 관리하고, 제설 민원 관리 대책도 수립·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파 저감 시설 101곳, 한파 쉼터 403곳 등을 운영하고, 취약계층에는 방한용품 지원을 비롯해 비상연락망 구축, 수시안전확인을 통해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비닐하우스, 축사 점검 등 농·축산 피해 예방 대책을 추진하며 대설·한파 행동 요령 지속 홍보, 특보 발효 시 재난 안내 문자 신속 발송 등을 통해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자연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 준비와 선제적인 상황 관리가 중요하다"며 "이번 종합대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 겨울철 주민 안전을 확보하고 재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준명 기자

남구, 19일 '2024 일자리 박람회' 개최

광주대서...강소기업 등 80곳 참여

광주 남구는 오는 19일 광주대 체육관에서 '2024 남구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에는 광주시가 선정한 강소기업을 포함해 80곳의 업체가 함께하며, 대학생과 청년, 중년 구직자 등 400여명이 참여한다.

올해 일자리 박람회에는 한국전력을 비롯한 공기업과 대기업 현직자의 취업 컨설팅과 함께 행사 당일 참석이 어려운 구직자를 위해 온라인 채용도 최초 도입됐다.

먼저 현장에서 인력 채용에 나서는 업체는 15곳이다. 이 중 10곳은 광주시 선정 강소기업으로 제조업 분야에서 3년 이상 연 매출 50억원 이상을 올린 업체를 비롯해 지식서비스 산업 분야에서 같은 기간 연간 10억원 이상 매출을 기록한 기업

체다. 정보통신과 AI 소프트웨어 개발, 병원, 서비스업, 수산물 도소매 분야 업체 5곳도 박람회 현장에서 우수 인재 찾기에 나선다.

또 65곳의 업체에서는 박람회 현장에 설치한 구인 게시판을 통해 구직자를 채용한다.

공기업과 대기업 취업 준비생을 위한 현장 컨설팅관도 문을 연다. 한국전력과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엠코테크놀로지 코리아 등 4개 기업에 담당자가 참여해 질의응답을 통해 구직자들에게 자기소개서 및 이력서 작성법과 블라인드 면접 준비, 기업 인재상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호남지방통계청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광주대 LINC3.0사업단 및 일자리플러스센터, 광주청년일자리센터 이션, 송원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 6개 기관은 취업 홍보관에서 취·창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과 취업 상담, 정책 홍보 등을 진행한다.

취업 워킹업 부스에서는 면접에 필요한 개인 맞춤형 색 찾기를 비롯해 이미지 만들기 방법, 적성검사를 통한 진로 결정하기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남구는 구직자에게 다양한 채용 정보와 구직 기회 제공을 위해 지난 6일부터 온라인 채용관 전용 사이트(<http://namgu.srbjobfair.co.kr>)를 운영하고 있다. 광주·전남 소재 우수기업과 중소기업 등 50여곳에서 직원 채용에 나서고 있으며, 해당 사이트는 오는 20일까지 운영한다.

남구 관계자는 "올해 일자리 박람회는 기존의 박람회와 많은 부분에서 차별화를 뒀다"면서 "청년·대학생부터 중장년 구직자까지 모두가 자신에게 적합한 분야를 선택해 좋은 결실을 보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윤준명 기자

동구, "한강 작가 '소년이 온다' 시민 낭독회 참여하세요"

오늘부터 29일까지 선착순 모집

광주 동구는 다음달 10일 오후 4시 동구 인문학당에서 열리는 '소년이 온다' 낭독회에 참여할 시민들을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낭독회는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다시 한번 기념하고, 12월 10일 스웨덴에서 열리는 '제124회 노벨문학상 시상식'의 기쁨을 시민들과 함께 나누고자 마련됐다.

'광주 동구, 80년 오월의 소년을 만나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낭독회 사회는

연극인 지정남씨가 맡는다. 행사에는 시민, 독서 동아리, 책방 등 다양한 독서공동체들이 모여 광주 5·18민주화운동을 소재로 한 작가의 작품 '소년이 온다'의 문장들을 낭독하고 5·18에 얽힌 이야기들을 나눌 예정이다.

또한 한강 작가의 인터뷰 영상도 만날 수 있으며 가수 이현미(활동명 꽃님이)

씨가 무대에 올라 한 작가가 직접 작사·작곡한 노래와 5·18민주화운동에 얽힌 노래를 들려줄 계획이다.

낭독회 참여자는 14일부터 29일까지 네이버폼을 통해 40명 선착순으로 접수 받는다.

임택 동구청장은 "지난 6년여간 '생활속 인문'을 지향하는 인문도시동구에서 이러한 뜻깊은 낭독회가 열려 감회가 남다르다"면서 "낭독회를 통해 많은 분들과 한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축하하고 작품의 의미를 나누고자 한다"고 말했다. 민현기 기자



배동신 아동미술제 전시회 광산구, 수상 작품 28점 전시

광주 광산구는 오는 16일부터 6일간 소촌아트팩토리 큐브미술관에서 '제34회 배동신 아동미술제' 전시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배동신 아동미술제는 광산구가 주최하고 광산문화원이 주관하는 행사로, 지역 출신 세계적인 수채화의 거장 배동신 화백을 기념하고, 미술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전시는 미술제 특별상 이상 수상 작품 28점이 전시된다.

광산구는 지난 9·10월까지 회화, 서예·문인화 부문 작품 총 309점 중 대상 3점, 최우수상 3점, 우수상 12점, 특별상 10점 등 총 203점을 선정했다.

시상식은 15일 소촌아트팩토리 큐브미술관에서 열리며, 대상은 상금 300만원을, 최우수상은 100만원을 수여한다.

배동신 대상은 회화부문 '운기'의 고예진 작가, 어등 대상은 문인화 부문 '맑은 바람이 달빛에' 정영숙 작가와 서예 부문 '눈제 선생이' 장준희 작가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배동신 아동미술제를 대한민국 예술인의 등용문으로,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에 활력을 불어넣는 장으로 키워가겠다"고 밝혔다. 김상철 기자

